



'이년도 하반기 사료산업 전망

홍순찬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대리

◇ 개요

1990년도 한국의 배합사료 총생산량은 10,426천 톤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년 전인 1970년의 배합사료 생산량이 508천톤이었고, 10년전인 1980년의 배합사료 생산량이 3,462천톤이었으므로 20년전보다는 약20배, 10년전보다는 약3배의 괄목할만한 양적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1990년 들어 전년대비 0.2%의 양적성장에 그쳐, 세계적인 오일파동의 여파로 80년에 -10.8%, 81년 0.8% 성장에 이어 최저의 성장세를 시현했다.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보여온 배합사료산업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의 정체현상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낙관할 수 없겠으나 90년에 들어 이와같은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된 데에는 과거의 2~3년 주기의 조정국면과는 다른 많은 국내외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의 배합사료 생산량이 1천만톤을 넘어섰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축산업의 경제적 규모나 그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은 미국의 경우 연간 배합사료 생산량이 1억3천만톤 수준이고, 우리나라와 모든 축산환경이 유사한 일본이 2천5백만톤, 영국, 독일 등 유럽 축산선진국들이 1천5백만톤 전후의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배합사료산업은 더 이상의 양적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산업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라 하겠다. 80년대 후반들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자유무역기조

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축산선진국의 축산물 수입개방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88년 미국의 대외무역법 301조를 비롯해, 최근에 들어서는 UR 협상 등으로 우리나라 양축농가의 사육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쇠고기 수입이 확대되면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값싼 수입쇠고기로 대체될 것을 우려해 미리부터 돼지사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을 끌어내리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94년까지의 수입자유화예시 계획에 따르면 94년까지 총 131개의 농수축산물을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29개의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GATT의 결정에 따라 97년까지는 미개방 예시축산물 142개 품목을 완전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주지하다시피 배합사료의 수입개방은 이미 8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낙농용 대용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이미 개방되어 있는 실정이다. 축산물의 수입은 배합사료가 축산물로 대체되어 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배합사료 수요창출의 근본요소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와 이 또한 사료생산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로 아직까지는 그 실시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91년 하반기부터 배합사료제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자가배합사료의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최근들어 지역 축산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가배합사료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낙농사료의 경우는 재고누증과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종농업부문의 재배면적이 사료작물 재배면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양계의 경우도 일부 양계협업농가들은 이미 자체사료공장 운영 또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정부의 규제가 점차 강화된다는 것이다. 축산생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문제가 대두되

면서 현재와 같은 사료의 조성분등록제도가 항생제, 호르몬제 등 약품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수록 채산성의 악화로 농가의 축산규모가 스스로 규제되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의무화로 과거와 같은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배합사료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견해와는 반대로 한국의 육류소비량이 아직은 미국 등 축산선진국은 물론 일본, 대만 등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육류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수입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축산규모로 현상유지 또는 소폭확대될 것이라는 견해와, 한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가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생산공료가 없으므로 경제규모 이하의 자가사료공장은 사료비용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타 추가비용의 증가로 자가배합사료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향후 배합사료산업은 연간 2~3%의 소폭증가는 지속되리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 배합사료 생산동향 및 전망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총생산량은 10,425,719톤으로 89년의 10,403,408톤에 비해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과거 수년간의 고도성장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 4월 현재 한국사료협회가 잠정집계한 4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사협이 2,877,493톤(79.6%), 축협이 738,449톤(20.4%)을 생산해 총 3,615,942톤을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중 배합사료 생산량 3,291,304톤에 비해 9.9%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 지난해의 생산둔화 추세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축종별로 보면 양계용 배합사료가 양계산

물 계절적 수요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한 1,154,535톤의 생산량을 보였고, 비육우용 사료의 경우도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우가격의 강세현상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18.4% 증가한 613,700톤의 생산을 시현하고 있다. 낙농용 배합사료의 경우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3.7%가 증가한 624,181톤의 생산을 보여 주고는 있으나 양계 및 비육우용 배합사료에 비해 성장폭이 적은 이유는 과거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된 저능력우의 과도한 도태로 인해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됐고, 이에 따른 원유부족현상으로 국내 유업계의 원유도입 및 유제품의 수입경쟁이 낙농가의 재입식의욕을 상실케 함으로써 사료생산 증가세를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의 전체배합사료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했던 양돈용 배합사료는 전축중에 걸쳐 그 회복세가 가장 미미한 전년도 같은 기간의 생산량 1,147,504톤에 비해 1.6% 증가한 1,165,576톤의 생산에 그쳤다. 이처럼 전축중에 걸쳐 배합사료 생산량이 큰폭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양돈용사료가 크게 늘지않고 있는 것은 대규모 양돈장에 대해 환경오염차원에서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양돈업의 신규참여가 쉽지 않고, 88년 이후 값싼 수입쇠고기가 수입되면서 양돈농가중 일부가 돼지고기 수요가 값싼 수입쇠고기로 대체될 것을 우려해 미리 생산규모를 축소 또는 전업을 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기타용 사료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30.1%나 증가한 57,950톤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나 절대량이 적으므로 전체 배합사료 생산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겠다.

금년도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사료수급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11,206천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각 축종별로 보면 양계용이 전년대비 14% 증가

한 3,733천톤, 양돈용이 전년대비 1.8% 증가한 3,615천톤, 낙농용이 전년대비 1.2% 증가한 1,811천톤, 비육우용이 전년대비 5.3% 증가한 1,754천톤, 기타용이 무려 103% 증가한 293천톤으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축산관측협의회에서 전망한 91년말 가축사육동향을 보면 한(육)우가 1,720천두로 전년말대비 6.0%증가, 젓소가 510천두로 전년말대비 1.2%증가, 돼지가 5,000천두로 전년말대비 1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산란계는 41,500천수로 전년말대비 2.2% 감소, 육계가 25,300천수로 전년말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의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비율을 감안할 때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3~4%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생산추세분석방법을 이용해 추정할 경우 최근 3개년간의 월별생산추이를 볼 때 4월말까지의 생산누계비율이 31.7%이므로 금년도 총배합사료 생산량은 11,406,757톤(3,615,942톤÷31.7%)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관측협의회에서 관측한 가축사육전망 및 최근 3개년간의 월별생산지수를 통해 전망해 볼 때 각 방법에 따라 증가폭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금년도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당초 수급계획상의 11,026천톤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들어 낙농사료를 중심으로 자가사료 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일부 축산물이 직접 수입되면서 수입되는 축산물은 배합사료로 대체되어 수입되는 결과를 가져와 배합사료 수요를 잠식할 수 있으며, 금년말까지를 시한으로 하고 있는 UR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UR협상의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축산물 수입개방이 더욱 가속화되어 이에 따라 양축농가의 사육기피 심리가 재연될 경우 하반기 이후 생산증가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표1〉 배합사료 생산동향

구분	양 계 용		양 돈 용		낙 농 용		비 육 용		기 타		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71	613,153	87.3	19,919	2.8	33,186	4.7	7,184	1.0	28,668	4.1	702,110	100	
'72	646,328	83.2	48,317	6.2	52,980	6.8	6,194	0.8	22,417	2.9	776,236	100	10.6
'73	685,330	75.3	121,822	13.4	82,544	9.1	5,412	0.6	14,512	1.6	909,620	100	17.2
'74	554,433	59.8	188,828	20.4	122,409	13.2	45,347	4.9	16,153	1.7	927,170	100	1.9
'75	568,566	63.1	135,505	15.0	150,671	16.7	33,495	3.7	12,758	1.4	900,995	100	-2.8
'76	867,818	62.8	207,074	15.0	174,004	12.5	43,549	3.2	90,081	6.5	1,381,526	100	53.3
'77	1,154,924	60.8	350,236	18.5	265,707	14.0	95,528	5.0	32,295	1.7	1,898,690	100	37.4
'78	1,638,554	60.5	498,110	18.5	320,728	11.5	233,088	8.5	2,625	0.1	2,693,105	100	41.8
'79	2,043,569	52.6	1,129,895	29.1	438,512	11.3	266,206	6.9	2,053	0.1	3,880,235	100	44.1
'80	1,871,852	54.1	769,357	22.2	543,541	14.8	306,333	8.8	1,335	0.0	3,462,418	100	-10.8
'81	1,842,072	52.8	761,204	21.8	470,831	13.5	414,699	11.9	1,650	0.0	3,490,456	100	0.8
'82	1,979,841	44.8	1,150,528	26.0	592,346	13.4	692,739	15.7	4,347	0.1	4,419,801	100	26.6
'83	2,245,621	38.4	2,013,007	34.4	709,936	12.1	870,595	14.9	12,427	0.2	5,851,586	100	32.4
'84	2,064,866	34.5	1,987,411	33.2	852,589	14.3	1,072,394	17.9	7,699	0.1	5,984,959	100	2.3
'85	2,309,726	35.8	1,923,692	29.8	994,282	15.4	1,209,042	18.7	14,330	0.2	6,451,072	100	7.8
'86	2,639,176	34.4	2,178,297	28.4	1,208,477	15.7	1,624,251	21.2	25,040	0.3	7,675,241	100	19.0
'87	2,933,024	32.5	2,953,297	32.7	1,404,234	15.6	1,673,467	18.6	54,207	0.6	9,018,229	100	17.6
'88	2,947,385	30.2	3,603,712	36.9	1,608,423	16.5	1,511,624	15.5	96,026	0.9	9,767,170	100	8.3
'89	2,922,828	28.1	4,071,563	39.2	1,718,739	16.5	1,561,337	15.0	128,941	1.2	10,403,408	100	6.5
'90	3,274,258	31.4	3,550,704	34.0	1,789,611	17.2	1,666,783	16.0	144,363	1.4	10,425,719	100	0.2
'91(9)	3,733,000	33.3	3,615,000	32.3	1,811,000	16.2	1,754,000	15.6	293,000	2.6	11,206,000	100	7.5
'90 (90-4)	978,882	29.7	1,147,504	34.9	601,973	18.3	518,392	15.7	44,553	1.4	3,291,304	100	-
'91 (1-4)	1,154,535	31.9	1,165,576	32.2	624,181	17.3	613,700	17.0	57,950	1.6	3,615,942	100	
	117.9		101.6		103.7		118.4		130.1		109.9		-

주) 91.1~4월까지 생산량은 잠정치임.

〈표2〉 가축사육동향 및 전망

(단위 : 천두, 천수)

구 분	90.3	90.12	91.3	91.6	91.9	91.12	증	▷ 감	(%)
	(1)	(2)	(3)			(4)			
한(육)우	1,486	1,622	1,610	1,670	1,730	1,720	8.3	▷ 0.7	6.0
젖 소	502	504	504	505	510	510	0.4	-	1.2
돼 지	4,303	4,528	4,487	4,600	4,800	5,000	4.3	1.4	10.4
산 란 계	37,995	42,430	43,043	43,400	42,500	41,500	13.3	1.4	▷ 2.2
육 계	17,032	26,935	24,489	26,800	29,900	25,300	43.8	9.1	▷ 6.0

〈표3〉 최근 3개년간 월별배합사료 생산지수

(단위 : 천톤, %)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88	생산량	783	718	820	813	820	807	790	776	807	816	864	953	9,767
	지 수	8.0 (8.0)	7.4 (15.4)	8.4 (23.8)	8.3 (32.1)	8.4 (40.5)	8.3 (48.8)	8.1 (56.9)	7.9 (64.8)	8.3 (73.1)	8.4 (81.5)	8.8 (90.3)	9.7 (100.0)	- -
89	생산량	809	747	892	844	916	887	825	873	888	901	894	927	10,403
	지 수	7.8 (7.8)	7.2 (15.0)	8.6 (23.6)	8.1 (31.7)	8.8 (40.5)	8.5 (49.0)	7.9 (56.9)	8.4 (65.3)	8.5 (73.8)	8.7 (82.5)	8.6 (91.1)	8.9 (100.0)	- -
90	생산량	830	783	857	822	880	848	820	880	933	869	925	979	10,426
	지 수	8.0 (8.0)	7.5 (15.5)	8.2 (23.7)	7.9 (31.6)	8.4 (40.0)	8.1 (48.1)	7.9 (56.0)	8.4 (64.4)	9.0 (73.4)	8.3 (81.7)	8.9 (90.6)	9.4 (100.0)	- -
평 균	생산량	808	749	856	826	872	847	812	843	876	862	895	953	10,199
	지 수	7.9 (7.9)	7.3 (15.2)	8.4 (23.6)	8.1 (31.7)	8.5 (40.2)	8.3 (48.5)	8.0 (56.5)	8.3 (64.8)	8.6 (73.4)	8.5 (81.9)	8.8 (90.7)	9.3 (100.0)	- -

주) 지수란의 ()내는 월별누계 임.

◆ 배합사료 가격동향 및 전망

현재 우리나라의 배합사료가격은 88년 한차례 가격인상이 있은후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및 양축농가의 경영비 부담가중 등을 이유로 안정세를 보여오다가 89년부터 시작된 국제사료곡물가격의 앙등과 더불어 환차손의 발생으로 수입사료원료의 가격인상효과를 배가시켜 몇몇 제조업체들에 의해 2%내외의 추가인상이 시도되었으나 물가당국과 양축농민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 배합사료가격은 이미 자유화 되었으므로 전적으로 원료가격의 등락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88년 미국의 한발여파로 인해 미국산 옥수수의 경우 톤당 140\$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였음에도, 옥수수의 대체원료인 소맥 및 수수의 세계재고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결국 옥수수가격에 의해 많은 지배를 받아왔다.

주지하다시피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합사료산업 여건상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세계사료곡물시장의 추이에 의존하고 있다.

미농수성이 4월10일 발표한 Crop Report에 따르면 90/91년 세계총사료곡물 생산은 825.99백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3%증가하였으나 기말재고는 오히려 124.61백만톤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사료곡물수출국들의 내수가 확대된데 기인하고 있다. 이중 미국의 사료곡물생산은 230.3백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로 증가했으나 기말재고는 전년동기대비 6%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사료곡물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옥수수생산은 472.04백만톤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나 기말재고는 70.51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백만톤 가까이 감소했다. 이중 미국이 생산한 옥수수는 201.50백만톤이며 이외의 주요옥수수 생산국의 생산동향을 보면 EC국가에서 21.56백만톤, 아르헨티나가 7.50백만톤, 남아공이 7.0백만톤, 태국이 3.7백만톤의 옥수수 생산을 보이고 있다.

한편 91년들어 우리나라 배합사료가격을 어느정도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소맥의 생산 및 기말재고를 보면 4월10일 현재 90/91년 총소맥 생산은 590.15백만톤으로 전년대비 9.9%의 증가를 보였고 기

말재고 역시 143.60백만톤을 기록해 무려 20.8%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미국의 소맥생산 및 기말재고량이 각각 74.54백만톤, 24.38백만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에 EC지역국가들이 80.62백만톤의 생산과 16.81백만톤의 기말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호주가 15.71백만톤의 생산과 3.84백만톤의 기말재고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소맥의 경제성이 좋아지자 지난해부터 소맥이 수입되기 시작하여 금년부터 사용됨으로써 값비싼 옥수수의 대체효과를 보이고 있고, 겔프전 이후 원료가격이 어느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박1일부터 대두박이 수입자유화되면서 국산대두박의 가격이 kg당 260원에서 200원으로 하향조정되어 원가부담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 아울러 방위세제의 폐지 역시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표4. 세계 사료곡물 수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0/91		1989/90		증 감 율 (%)		
	4월(A)	3월(B)	4월(C)	3월	A/B	A/C	
공 급	기초재고	124. ⁵³	124. ⁴⁸	148. ⁹²	147. ⁷⁶	100. ⁰	83. ⁶
	생 산	825. ⁹⁹	825. ⁶⁶	800. ³⁵	803. ⁵⁰	100. ⁰	103. ²
	수 입	93. ⁶⁶	95. ¹⁷	112. ⁹⁵	112. ⁹⁹	98. ⁴	82. ⁹
	총 공 급	1044. ¹⁸	1045. ³¹	1062. ²²	1064. ²⁵	99. ⁹	98. ³
수 요	국 내 용	825. ⁹¹	827. ⁶⁷	824. ⁷⁴	828. ⁷⁸	99. ⁸	100. ¹
	-사료용	545. ³⁸	548. ⁰⁸	547. ⁰⁹	547. ⁹⁸	99. ⁵	99. ⁷
	-기 타	280. ⁵³	279. ⁵⁹	277. ⁶⁵	280. ⁸⁰	100. ³	101. ⁰
	수 출	93. ⁷²	94. ³⁸	111. ⁶⁴	111. ³⁴	99. ³	83. ⁹
	총 수 요	919. ⁶³	922. ⁰⁵	936. ³⁸	940. ¹²	99. ⁷	98. ²
기말재고	124. ⁶¹	122. ⁴⁷	124. ⁵³	124. ⁴⁶	101. ⁷⁰	100. ¹	

〈표5〉 주요 사료원료 가격동향

(C & F가격, US\$/M. T)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평균	
옥수수 (미국산)	1989	148. ⁵	145. ¹	147. ⁶	144. ¹	146. ⁹	138. ¹	131. ⁶	126. ²	127. ⁶	133. ¹	137. ⁸	137. ⁹	138. ⁷
	1990	135. ³	134. ⁶	137. ⁷	142. ⁵	143. ⁶	141. ³	133. ⁹	130. ¹	122. ¹	124. ²	125. ⁵	130. ³	133. ⁴
	1991	132. ³	134. ⁰	137. ⁴	134. ⁷	-	-	-	-	-	-	-	-	-
옥수수 (중국산)	1989	-	140. ⁰	-	-	-	-	-	-	-	-	-	-	140. ⁰
	1990	-	-	-	139. ²	140. ⁸	140. ⁰	139. ⁰	137. ⁰	123. ⁵	121. ⁶	122. ²	122. ²	131. ⁷
	1991	122. ²	125. ⁷	-	128. ⁵	-	-	-	-	-	-	-	-	-
수수 (중국산)	1989	125. ⁸	127. ⁰	123. ⁰	122. ⁰	122. ⁸	125. ⁵	125. ⁶	130. ⁰	130. ⁰	129. ³	128. ³	-	126. ³
	1990	128. ⁵	127. ⁵	129. ⁵	128. ⁸	127. ⁸	127. ⁵	127. ⁸	127. ⁷	122. ⁷	120. ⁰	120. ⁰	119. ²	125. ⁵
	1991	120. ²	124. ⁵	-	-	-	-	-	-	-	-	-	-	-
소 맥 (EC산)	1989	153. ⁰	155. ⁰	155. ⁰	150. ⁰	154. ⁰	155. ⁰	-	-	-	-	-	-	153. ⁷
	1990	-	-	-	-	-	135. ⁰	130. ⁶	119. ⁰	101. ⁰	97. ⁰	95. ²	97. ⁰	110. ⁶
	1991	98. ⁵	99. ⁷	113. ⁰	114. ⁶	-	-	-	-	-	-	-	-	-
소맥피 (동남아산)	1989	108. ⁰	108. ⁸	119. ³	130. ⁰	130. ⁰	130. ⁰	128. ⁴	125. ⁰	119. ⁵	116. ⁸	126. ⁵	130. ⁰	122. ⁶
	1990	126. ⁰	124. ⁵	123. ³	122. ⁰	116. ³	115. ⁰	113. ⁶	117. ⁵	111. ²	105. ⁴	106. ⁵	106. ⁴	115. ⁶
	1991	105. ⁰	106. ⁰	105. ⁵	105. ⁰	-	-	-	-	-	-	-	-	-
대두박 (중국산)	1989	307. ⁰	297. ³	291. ⁸	285. ³	277. ²	271. ³	258. ⁴	241. ³	235. ⁰	221. ⁰	225. ⁰	221. ⁰	260. ⁵
	1990	220. ²	214. ⁰	207. ⁰	205. ⁰	207. ³	206. ⁰	202. ²	197. ⁵	195. ⁰	196. ⁸	195. ⁷	195. ⁶	203. ⁵
	1991	195. ⁰	193. ⁷	193. ⁰	187. ⁰	-	-	-	-	-	-	-	-	-
채종박 (인도산)	1989	136. ⁸	124. ⁵	122. ³	121. ⁰	123. ⁰	118. ³	108. ⁰	108. ⁰	105. ³	112. ⁰	117. ⁰	115. ⁵	117. ⁷
	1990	112. ⁴	105. ⁸	104. ⁰	103. ⁴	105. ³	101. ³	95. ⁰	95. ⁰	92. ⁵	100. ²	113. ⁵	109. ⁰	102. ³
	1991	101. ⁵	93. ⁰	87. ⁷	83. ⁰	-	-	-	-	-	-	-	-	-
타피오카 (태국산)	1989	58. ⁰	64. ⁸	69. ⁸	71. ⁰	80. ⁰	80. ⁰	65. ⁸	56. ⁵	54. ⁵	50. ²	57. ⁰	62. ⁰	64. ¹
	1990	70. ⁶	76. ³	79. ⁵	75. ²	75. ⁰	72. ⁰	72. ⁴	79. ²	80. ⁵	80. ⁰	79. ⁰	79. ⁶	76. ⁶
	1991	78. ²	69. ⁷	63. ²	64. ⁰	-	-	-	-	-	-	-	-	-

보인다.

따라서 지난해말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단행한 일부기업들이 년초에 들어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가격을 인하시켰다.

지난해 결프전을 전후하여 귀금속과 원유에 몰려있던 투자자금이 곡물로 집중되고,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선임상승 등으로 곡가가 폭등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재 국제곡물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결프전이 종전되면서 중동지역의 곡류 수요가 살아나고 귀금속과 원유에 몰려있던 자금이 곡물로 집중되어 일시적인 강세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곡류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귀금속 및 원유 등에서 잃은 손실을 곡류에서 만회하려는 투기성 펀드머니의 유입가능성과 세계곡물생산이 증가하기는 하나 주요수출국들의 국내수요증가로 수출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의 상황변화가 주목된다.

국제 사료곡물가격은 지난 84년이래 생산증가와 과잉재고로 저곡가 시대를 누려오다 88년 미국을 비롯한 몇몇 수출국들의 한발피해로 고곡가시대로 급전된뒤 한차례 조정국면을 보여 지난 3여년동안 단기적인 등락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추이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비교적 원료선택이 자유로웠으나 3~4년을 주기로 곡가가 심한 기폭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곡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나 배합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원료가격이 비교적 안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적인 악재가 작용하고 있어 배합사료가격 안정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료가격은 대개 원료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3~4개월 이후에 원가에 반영되며, 제조업체의 원가계산을 대개 분기 또는 월별로 하는 경우가 있어 국제곡물가격추세와는 시점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배합사료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악재로는 우선 원료의 수송비 부담이라 할 수 있다. 91년 현재 물적유통비용은 2.5%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제조원가중 인건비의 비중이 점차 높아 있음에도 인력확보가 쉽지않고,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의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배합사료가격은 일부 곡류가격이 상승하고, 89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의 발생, 물류비용의 폭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세계적인 사료곡물의 생산증가 전망에 따라 수입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예상되므로 배합사료가격의 안정이 어느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년초 제조업체들에 의해 2%내외의 가격인하가 있었던 바 위의 2% 가격인하폭이 현재의 가장 낮은 원료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하폭이 결정되었을 경우와 배합사료 할인판매를 시도해 왔을 경우 앞으로의 원료가격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여력을 상실했을 시는 배합사료가격의 불안현상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배합사료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요인과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상충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과 배합사료산업은 개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배합사료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합사료 공장들의 지속적 연구개발은 물론 이를 적극 지지할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제도개선 등을 비롯해 배합사료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기**